

박 철 희 (朴 喆 熙)

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.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. 동 대학원 정치학석사.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취득 (현대 일본정치 전공).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,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역임. 컬럼비아대학, 게이오대, 고베대 객원교수 역임.

현대일본학회 부회장. 서울국제포럼 멤버 및 섭외위원장. 외교부 자체평가위원, 한일포럼 멤버 및 운영위원. 이화동아시아포럼 대표간사. 2012년부터 일본 동경신문 칼럼니스트. 2013년 7월부터 문화일보 칼럼니스트. 조선일보,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에는 물론, 아사히신문, 요미우리신문, 마이니치신문, NHK, CCTV, BBC 등에 한일관계에 대한 논평 및 인터뷰 다수 게재.

저서에 <代議士のつくれ方(일본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법)> (문예춘추, 2000), <자민당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> (서울대출판부, 2011), 공저로는 <Japan's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>, <East Asia's Haunted Present>, <Changing Power Relations in Northeast Asia>. 역서로는 <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>, <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>, <일본의 미들파워 외교>가 있고, 그 외 일본정치, 한일관계,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저서 및 논문 다수.

2005년 일본연구 및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제1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.